

청 원 서

수신 : 안산시의회 의장

제목 : 안산시 별망어촌마을 낱장망어업 시설물 피해보상 의견 청원

1. 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는 구)시흥군 군자면 초지리 별망마을 어민들로서 안산 신도시1단계 사업 시 수용되었습니다.
3. 사업 고시 당시 구)공유수면매립법 제18조(1972. 12. 30. 법률 제2411호) 시설물 등의 손실보상 - 의 보상법이 있었음에도 누락이 되어, 2004년 3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합의하에 관계기관의 “행정정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보상지급을 하기로 주민과 합의약속을 하였으나 실행되지 않아 합의사항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위의 청원을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① 청원서 1부
② 청원자 연명부 1부
③ 청원소개 의견서 1부 . 끝.

2011. 12. 5 .

청 원 인

○ 주 소

○ 제 출 자 : 별망지역주민협의회 김분순 외 20명

○ 소개의원 : 나 정 숙 의원

NA 정숙



청 원 서

안산시의회 의장님께 올리는 글월

존경하는 의장님 !

삼가 옷매무새를 바로하고 저 김분순 외 20인은 안산시의회에 글월을 올립니다

‘시민과 함께 느끼고, 생각하며, 호흡하는 의정’ 구현으로 시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리고 시민의 바람과 어려움을 헤량하시어 보살펴 주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스무분의 의원님께 삼가 허리숙여 禮를 올립니다.

제 목 : 안산시 별망어촌마을 낭장망 어업시설물 피해보상의 건

청원내용

존경하는 의장님 !

여기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저희들은 안산시 신도시1단계 사업지구 조성시 수용된 마을의 어민들로 1953년부터 1983년도 초봄까지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305번지 (구, 시흥군 군자면 초지1리 305번지 별망)에서 낭장망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하여 살아가던 영세어민들로서, 현재도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저희 마을은 1976년 12월 04일 도시계획구역 결정고시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화호 방조제 안팎으로는 유일하게 1964년도부터 어촌계를 구성하여 최초로 낭장망어업이라는 업종 활동을 하던 어촌마을이었습니다.

수용 당시 신거주지로 이주를 한 2,360가구 중 유일한 어촌마을로서 24가구의 구성원 대부분이 이북피난민들 이었으며, 그 중 일부는 국가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별망마을은 수용 지구내의 다른 마을과는 다르게 수용조건에서 위와 같은 자연환경과 시대적 정황의 두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이 작용하였는지 반월공단조성 사업시, 주정부락과 함께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면허보상은 이루어 졌으나, 별망어촌마을의 낭장망 어업시설물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초지어촌계의 조직구성원은 낭장망어업을 주업으로 하던 별망마을과 초코 어업인 홀림그믐과 낙시주낙을 주업으로 하던 소형어선 소유의 주정부락이 합쳐 만든 어촌계로 조합공판장은 별망마을에 두고 있었습니다.

양식장 면허어업 보상금 수령자도 저희마을은 일부 몇 사람 뿐이었습니다.

초지리 별망갯벌지선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근 원시리, 성곡리 앞바다 갯벌에 공유수면매립공사가 진행되면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4항에 의거 조직된 초지어촌계의 제1종 공동면허어업 양식장도(no.8호) 함께 매립되어 갔습니다. 계속하여 매립면적이 확대되면서 급기야 매립공사로 인한 어업 피해 진정서가 1979년 5월초 (5월15일) 초지어촌계 어민 50인의 연명으로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에 민원접수 하기 이르렀고, 그 결과 1980. 11. 18자 '80제 3차 보상금사정조서 (군자면 초지리 어촌계) 기록에 의하면 양식장 면허 보상은 이루어 졌으나, 별망어촌마을의 낭장망 어업시설물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위의 어업피해 진정서내용 과 같이 “귀책의 사유가 분명하게 한국수자원 공사측에 있었음에도” 한국수자원공사 보상팀의 계속된 주장에 의하면 양식장 면허어업 보상의 경우는 양식장에 토사를 직접갔다 매립하는 행위로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보상을 실행한 것이나, 낭장망 어업시설물 보상의 경우는 1976년 고시 당시 수산업법에 보상 명시규정이 없었으며, 또한 어선은 이동이 용이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자유롭게 어업에 종사할 수가 있었으므로, 보상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2007. 07. 31까지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살펴보건데 그 당시에도 구)공유수면매립법 제18조에 분명히 어업 시설물 손실보상이 있었습니다.

별망마을 주민들이 2004. 03. 04부터 줄기차게 요구하여오던 낭장망어업 시설물보상이 구)공유수면매립법 제18조(1972. 12. 30. 법률 제 2411호)에 명시된 시설물 등의 보상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자

마침내 2007. 07. 20일 국회별관 제종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양정규), 한국수자원공사 보상, 판매부장 (김배호 외), 별망마을주민대표 등, 3자가 회동 합의하에 본민원의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에 서면질의하여 그 유권해석의 결과에 따라 보상포기 ,또는 보상지급을 실시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질의 결과 해양수산부의 2007. 08. 01 (연안계획팀 - 3119)자 회신문에 따르면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시설물은 “당시에 어업허가를 받아 말짱 등을 설치한 시설로 이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당해 공유수면을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볼수있다고 판단됨” 이라는 심의·결과 유권해석이 통보되었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라 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2007.11.07 (농림해양팀-5075)자 회신문에 “안산신도시 건설1단계 사업당시 사업구역 내에서 낭장망어업 조업사실여부 등의 확인이 가능한 별망마을주민들에게는 보상 등 지원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달라는 심의·결정된 공문이 송달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지급 실행이 차일피일 미루어오자 2007. 11. 31 안산시소재 조력건설단 사무실에서 구)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수자원공사 보상 판매부장, 별망마을주민대표 (현 김현삼도의원 참석) 등이 회동하여 2007. 11. 07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결정 공문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걸쳤으며 그 자리에서 고충처리위원회의 공문에 따라, 보상지급에 따른 용역을 한다는 전제하에 기술적표현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기 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굳게 믿고 살아온 진솔하고 소박한 어민들인 저희는 한국수자원공사측의 그간 여러 가지 변론내용과 수자원공사측의 소명과정에서 당대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양보하였던 우리의 희생 대가가 무엇이고, 반월공단과 시화호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들에게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1. 06. 08일부터 다시 시작된 4차 집회의 6개월 이라는 집회기간 동안과 수자원공사와의 수차례의 협의를 거치면서 “바람직한 사회가 뭔가” 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경제라는 암묵적인 사회적합의 요구에 따라 저희 별망마을은 순응하고 부응하였는데 암묵적인 사회계약이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는 무엇이었으며, 어떤 보호장치를 만들어 행복한 삶을 가능케 하고 , 가족들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도록 국가는 역할을 하였는지 굴곡된 변화와 냉엄한 현실 앞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느꼈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

시대의 환경차이를 존중한다면서도 차이를 절대화 하던 한국수자원공사가 핵심의제를 재설정하여 낡장망어업이 왜 조업중단하게 되었는지의 “인과 관계”를 해명할 만한 사실내용의 증빙자료가 발굴·제출 되면 보상을 하겠다고 2011년 9월 중순 주민대표와의 협의자리에서 약속을 한바가 있었으며, 그 후 다행히도 천우신조로 그간 어디에도 보관·존재되지 않고있다고 하던, 고시 당시의 실증자료인 1978년 02월 별망어촌부락 ‘건물실태조서’와 조합, 물량장, 어선통제소 등의 물권자료가 정보공개요청에 의하여 안산시로부터 공개·회신 되었고, 뒤이어 “반월공단 어업피해보상”문서와 1979년 5월의 시흥군 군자면 초지리 어민 일동의 어장피해 진정서가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개·발굴되었습니다.

위의 두가지가 확보·제출되면 어업시설물 보상은 하여준다고 분명하게 한국수자원공사 보상처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확인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그 협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실현가능한 새로운 희망을 이룰 수 있게끔 자발적으로 협의·약속한 사안이었음에도 웬일인지 오늘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

역동적으로 달려온 시화호의 개발은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랑스런 성취이기도 합니다.

사회 각 분야의 단체와 명망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 토론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가능케하고 가족들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한 대안과 의견을 모아주신 지금이, 이를 바탕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별망마을 주민들 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 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를 찾고 이야기 할 새로운 약속·합의를 다시 쓰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삼가 깊이 머리 숙여 읊소를 드려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별망마을 주민들의 억울하고 간절한 사실내용을 하해와 같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시어 부디 굿어 살피 주시옵길 간절히 지극한 願을 세워 청원하옵
니다.

2011. 12 . 5 .

붙임 :

- ① 청원인 연명부 1부
- ② 해양수산부 유권해석 공문 사본 1부
- ③ 구)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문 사본1부
- ④ '78 별망마을 건물실택조서 1부
- ⑤ 어선원부 등록대장 1부
- ⑥ 어업권 손실보상비 사정조서 사본 1부 끝.

별망지역주민대표 김분순 외 20명 올림



안산시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시설물 피해보상 의견 청원

안산시의회 의견서

안산시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시설물 피해보상 의견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산시의회 의견을 제시함.

- 안산 신도시1단계사업 시 수용된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시설물에 대한 피해보상이 (구)공유수면매립법 제18조 시설물 등의 손실보상에 의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보상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2004년 3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하기로 주민과 합의를 하였고, (구)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2007년 11월7일 “안산신도시 건설1단계 사업구역 내에서 낭장망어업 조업사실여부 등의 확인이 가능한 별망마을 주민들에게는 보상 등 지원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심의·결정된 공문이 송달된 바 있습니다.
- 이에 별망어촌마을 낭장망어업 시설물 피해자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하여 주기 바라며, 주민들의 청원 내용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접수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